

제목 Theme: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자기를 낮추는 일 **Do or Not in Sabbath**

본문 Scripture: 누가복음 14:1-11 절

1.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옆보고 있더라 **It happened that when He went into the house of one of the leaders of the Pharisees on the Sabbath to eat bread, they were watching Him closely**
2.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And there in front of Him was a man suffering from dropsy.**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느냐 아니하느냐 **And Jesus answered and spoke to the lawyers and Pharisees, saying,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 or not?"**
4.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But they kept silent. And He took hold of him and healed him, and sent him away.**
5.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And He said to them, "Which one of you will have a son or an ox fall into a well, and will not immediately pull him out on a Sabbath day?"**
6.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And they could make no reply to this**
7.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And He began speaking a parable to the invited guests when He noticed how they had been picking out the places of honor at the table, saying to them,**
8.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When you are invited by someone to a wedding feast, do not take the place of honor, for someone more distinguished than you may have been invited by him,**
9.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and he who invited you both will come and say to you, 'Give your place to this man,' and then in disgrace you proceed to occupy the last place.**
10.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But when you are invited, go and recline at the last place, so that when the one who has invited you comes, he may say to you, 'Friend, move up higher'; then you will have honor in the sight of all who are at the table with you.**
1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For everyone who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d, and h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본 내용의 중심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과 자기를 낮추는 일에 대하여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대표되는 한 사람의 집에** 식사를 하려고 들어 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걸인처럼 얹어 먹으려고 들러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한 대표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해 하면서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1 절**).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고창병(수족병)이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2**). 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 중 대표가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을 것이고 떡을 준비하기 전에 가까운 사람 중에 고창병(수족병)이 걸린 사람을 데려다 놓았을 것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고창병이 든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 절에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라고 하신 내용에서 그들이 엿본 이유는 음식을 드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고창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하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잠잠하며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 장 2 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라고 할 정도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법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13 장 14 절**에 안식일에 병들어 있는 한 여자를 고쳐 준 것에 대하여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고 한 것처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법으로는 고치거나 치료하거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거슬려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실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초청해 놓고 고창병 든 사람을 그 집에 있게 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도 보편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또는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하신 이유는 율법사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시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신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 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안식일에 이곳에 있는 고창병 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하나?”하시니 저들이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예수님을 당황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말로는 안식일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를 고쳐 보내시고(**4 절**)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5** 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스스로 그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안식일이라도 했던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6 절**).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 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려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끼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옻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외식이 결국 말만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행위를 하되 모두 위선적으로 하며 그들의 속성인 높은 자리, 상석, 대우 받는 것을 좋아하며 특히 서기관들은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잠언서에 **25 장 6 절과 7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 어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할 때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때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해야 한다는 사역자의 기본을 교육하신 것입니다(**7-11 절**).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사역자들 주시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4 절**)

1 로마서 **9:15** 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2. 잠언 **8:17** 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둘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신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0 절**)

1 잠언 **22:4** 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2. 베드로전서 **5:6** 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3. 마태복음 **11:29** 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셋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와 사역자들에게 **말과 행동이 같은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11 절**)

1 야고보서 2:22 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6 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 로마서 1:17 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 히브리서 11:4 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